



12·3 비상계엄 극복 1년… 여야 확연한 온도차

李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2일 국무회의서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국민의힘 ‘계엄 사과’ 두고 당내 의견차

지난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12·3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해제된 지 3일로 1년을 맞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에 대해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한 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다.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주를 방문했을 때 “이번 대선은 작년 12월 3일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3일에는 계엄에 맞서 국민 주권을 수호한 우리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특별 성명도

낼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특별담화는 총부리에 맞선 합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의 모두발언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12월 3일’을 맞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정부 여당과는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계엄 사과를 두고도 당 내에서 의견이 갈리며 아직 계엄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 분위기다.

국민의힘 일부 초선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사과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경우 20여 명의 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원 모임 “내란 옹호자, 정계 은퇴해야”

오영훈 지사 진실 해명·사과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가 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저지 1주년 성명서를 발표했다.

모임은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협위원장 3인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고, 극우단체와 함께 윤여계인 제주 집회에도 참여했다”며 “고광

철·김승욱·고기철 당시 당협위원장은 내란옹호, 윤석열 비호에 대해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도 “내란의 질실 규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지역도 따로 없다”며 “오 지사는 내란의 밤의 행적과 대응에 대해 숨김없이 공개하고, 청사에 등장하지 않은 3시간에 대

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의 혈세로 추진된 고부건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지출된 변호사 비용을 제주도에 반납해야 한다”며 “자신이 있다면 자신의 이름과 비용으로 직접 당당하게 고발을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특검을 향해서는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당한 오영훈 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성역 없이 수사를 촉구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관광마라톤 예산 6배 증가 과도해”

2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회의

현기중 의원 “올해 외국인 500명 참가… 1만명 가능한가”

원화자 의원 “전기차 보급 목표 8000대, 예산은 2900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관광협회가 주관하는 제주국제관광마라톤 축제가 무리한 목표로 과도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현기중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제주국제관광마라톤 축제 예산이 한해 사이 6배 가까이 불어난 점을 개괄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에 30주년을 맞은 제주국제관광마라톤 축제 예산으로 11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2억원보다 9억원 증액된 것이다.

제주도는 내년에 외국인 1만명 등 3만명 참가를 목표로 대회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며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 의원은 “올해 제주국제관광마라톤에 참가한 외국인 수는 500여 명”이라며 “한해 사이 목

표치 1만명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제주도가 주최하는 또 다른 마라톤 대회인 국무총리기국제생활체육구간마라톤 대회 예산은 7000여 만원에 불과하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양보 제주관광교류국장은 “20~30대를 중심으로 (국내에) 마라톤이 붐이 일고 있고, 외국 마라톤대회의 경우 몇 시간 만에 30만명이 참가 접수를 위해 접수를 한다”며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반면 올해 예산이 조기 소진돼 추가 재정까지 투입하는 등 수요가 충분히 검증된 전기차 보급사업의 내년 예산은 40% 수준으로 감액 편성돼 논란을 샀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에 지방비 260억원과 국비 700억원을 투자했으며 신청자 급증으로 이중 도비가 조기 바닥나 추가 재정



현기중 의원 (왼쪽)·원화자 의원

까지 투입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은 지방비 106억원, 국비 296억원으로 잠정 편성돼 올해 대비 60.4% 줄었다. 제주도는 내년 전기차 8000대 보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이 예산으로는 2900여 대만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가 축소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부족한 예산을)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JDC 이사장 후보 조만간 재추천 돌입

국토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요청 예정”

지난 7월 양영철 이사장이 사퇴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후임 이사장 선임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공적인 공공기관장에 대한 후보자 공모와 재추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JDC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함께 재추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JDC 이사장은 전임 양영철 이사장의 임기 완료를 앞둔 지난 2월 공모를 거쳐 3명의 후보가 국토교통부에 보고됐지만 탄핵 이후 ‘알박기 논란’이 제기되면서 임명이 보류됐다.

지난 3월로 임기가 끝난 양영철

이사장은 후임 임명이 지연되면서 4개월 넘게 이사장직을 이어오다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JDC가 ‘미흡(D)’ 평가를 받은 후 지난 7월 물러났다.

JDC는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며 내년도 경영평가 준비와 함께 면세점 매출 급감에 따른 경장경비 절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일 기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과 SR 대표이사, 한국부동산원 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등에 대한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위영성기자 yswi1968@ihalla.com

제주도,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부문 중대산업재해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12일까지 행정시를 포함한 241개 전 부서와 공중이용시설 431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점검을 진행한다. 각 부서와 시설 관리기관이 자체 점검을 실시한 뒤 도 안전정책과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검 항목은 ▷안전보건 관리자의 업무수행 실태 ▷도급·용역·위탁 시 이용자 안전 확보 절차 이행 여부 ▷법령상 의무 교육 이수 현황 등이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관리상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중점 확인한다.

오소범기자

2025년도 원포인트 워크숍

제주도 주변 마을어장

수산자원 조성 방안

일시

2025. 12. 4. [목요일] 15:00 ~ 18:00

장소

제주어류양식수협 2층 대회의실

모시는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수온 상승 등 해양환경의 여건 변화로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자원 생산성이 약화됨과 동시에 수산물 소비 감소 및 해의 수출길이 막혀 수익성이 떨어져 마을어업인의 수산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해양수산정책 포럼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이 공동으로 마을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주도 주변 마을어장 수산자원 조성 방안'을 주제로 원포인트 워크숍을 개최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통하여 현재의 실태를 진단 하고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인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대표이사장 김 석 중 | 공동이사장 김 미 자 · 이 생 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대표 양 홍 식

행사문의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사무국장 김상현 010-3693-911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정책연구원 강경범 010-8315-0807

주 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

사랑나눔 랜선바자회

백혈병·소아암 및 난치병 환아들을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

2025.12.19~12.21(3일간)

시간

AM10:00 ~ PM18:00

장소

이룸갤러리 (제주시 일주서로 7827-1)

바자회 수익금은 환우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전액 사용됩니다.

온라인주문 | 11.19~12.21

행사 및 문의 064-752-3300 | FAX 064-752-3303 | Email jejubh16@daum.net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